



Presentation Summary Form

1. 발표제목

국문 제목	신기술, 정말 모두에게 좋은 걸까? 기술의 세대 차이
영문 제목	

2. 발표 요약문 (500자 이상)

국문 요약문	<p>저는 유튜브 원샷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p> <p>저는 18 살때 희귀병으로 실명을 하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된지 어느덧 15 년차가 되었습니다.</p> <p>그 사이에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이젠 너무나 익숙한 기계죠?</p> <p>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아주니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p> <p>하지만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겐 차별적이고 어려운 기술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혼자서는 햄버거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p> <p>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는 그저 벽을 두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겐 높이가 맞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사용 조작이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p> <p>누군가는 편해지지만, 누군가에겐 장벽이 되어버리는 기술. 과연 모두를 위한 기술이란 무엇일까요?</p> <p>지금으로부터 십 수년 전, 외국에 가게 된 한 시각장애인은 말을 하는 밥솥을 발견합니다. 너무 놀란 시각장애인은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 스스로 밥솥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를 확인하려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p> <p>당시 한국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밥솥이 왜 해외에서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p>
-----------	--



GLOBAL HR FORUM 2024

해외의 기술이 더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바로 제도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접근성 메뉴얼을 따라야합니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위해선 밥솥이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해외에서 놀란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기술을 만들기 시작할때부터, 사용자 모두를 고려한다면 기술약자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 시각장애인이 될 때, 저는 핸드폰 사용을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스오버를 통해 메시지, 통화, SNS 등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폰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용자 모두를 위해 기술을 탑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약자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도 안되는 속도로, 말도 안되는 놀라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든 후에 바꾸려고 하면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도입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모두를 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술 약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술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제가 물리적으로 눈을 뜨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은 저의 장애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신기술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GLOBAL HR FORUM 2024

영문
요약문

My name is Kim Han-sol, who runs a YouTube one-shot Hansol channel and also works as a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instructor.

When I was 18, I became blind due to a rare disease and I've been blind for 15 years now.

In the meantime, various technologies come out and the world seems to be changing rapidly.

Kiosk, it's a very familiar machine now, isn't it?

Since machines take orders instead of people, many people use them accurately and conveniently.

However, kiosks can only be seen by someone as discriminatory and difficult technology.

I can't go to a hamburger restaurant by myself since the kiosk was created.

For the blind, a kiosk is not much different from just knocking on a wall.

It doesn't fit children or wheelchair users,

Older adults sometimes find it difficult to manipulate their use.

Technology that makes someone comfortable, but becomes a barrier for someone.

What is technology for everyone?

Ten years ago,

A blind person who goes abroad finds a talking rice cooker.

The blind, who was so surprised, thought that if this technology came into Korea, the blind could use a rice cooker on their own in Korea.

The moment you try to identify a brand, you are shocked. It was a product of a Korean company.

Why was a rice cooker that didn't speak in Korea talking abroad at the time?

Because foreign technology is better? No.

It was for institutional reasons.

You have to follow the country's accessibility manual to export.

In order to be a product accessible to everyone, we needed to have the technology that the rice cooker talked about.



GLOBAL HR FORUM 2024

The technology that blind people in Korea were surprised by overseas was actually possible in Korea.

In this story, we see how important it is to have an institutional part in place.

From the start of designing the product and creating the technology, the scope of the weak may be much smaller than it is now if you consider both users.

When I first became blind, I couldn't use my phone at all.

But now, you can freely use your phone through voiceover, such as messages, calls, and SNS.

This phone is not made separately for the blind.

From the design stage, the iPhone is built with technology for all users, including the blind.

As times change rapidly and new technologies develop, you would have thought that you would be able to live a more comfortable and prosperous life.

But why is technology weak emerging?

Now the ai era is coming.

The world is coming out at a crazy pace, crazy amazing technologies.

If you try to change it after making it, it's bound to be more difficult.

As soon as new technologies are created and introduced

I hope we can all think about what technology is for everyone and what it is to embrace everyone.

I hope that Korea is full of technology that embraces everyone, not a society where the number of technology weak is increasing.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technology that I thought were impossible because I am disabled.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for me to physically open my eyes, I think technological advances can alleviate my disability.

I hope the new technology in the future will bring us all joy and hope.